

#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기관의

## 개편에 대하여 . . .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이 정 길

필자는 3년 전 대한수의사회지에 “6년제 수의학교육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sup>1</sup>

그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보자면 서언에서는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6년제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았다. 이어서 6년제 수의학교육의 시행에서 앞으로 부딪치게 될 문제를 지적하였고, 1997년 당시의 수의학교육 실정을 분석하였으며, 일선 수의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주장을 인용하여 수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은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온 6년제로의 학제개편의 당위성에 비추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수의사를 양성하려면 전국에 산재한 너무 많은 수의학교육 기관을 몇 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그 글을 대한민국의 모든 수의사가 구독하는 대한수의사회지에 게재한 것은 우리의 수의학교육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합의점을 도출하여 앞으로는 실력을 충분히 갖춘 수의사를 배출해보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거기에 부가하여 필자는 예견되는 문제에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면

후배 수의사들은 우리가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을 되풀이해서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6년제로의 학제개편을 주장한 배경은 전공교육시간의 부족 때문에 수의사들이 내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외적으로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데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글이 발표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필자의 제안에 대해 불만을 가진 교수들이 있었다고 듣고 있었지만 아직 단 한사람도 직접 필자에게 불만을 토로한 일이 없었다. 다만 필자의 제안에 찬성하는 몇몇 교수들이 수의학교육의 앞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과연 통폐합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걱정한 경우는 있었다. 여기서 공식적이라는 표현은 찬성이든 반대가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면 그 의견도 필자가 이용한 바로 그 매체를 통하여堂堂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당시 한 곳에서 보낸 항의문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을 필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필자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의과대학 통폐합에 관한 논의는 그후

여러 분야에서 계속되었으며, 여론은 통폐합을 단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듣고 있다. 그 증거로 지난해에 발표된 한 제언의<sup>2</sup> 예를 들 수 있는데, 제언자인 이성환 원장은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향후의 수의사 수요와 자연도태를 감안한 수의사 출고 주문서를 작성해보자. 네 학교 내 학교를 따질 일이 아니다. 모두를 없애고 '대한수의과대학' 하나로 만들어도 좋다. 우리나라가 대학 소재지가 떨어져 못 갈 만큼 큰 나라가 아니다. 우선 두세 개 수의과대학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수의과대학 2개의 교수진을 합쳐도 필요교수정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또 전체를 살리자는 결정에 사사로운 이익을 내세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제언에 반박하는 글을 필자는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 제언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년 3월에는 전국수의학교육협의회와 전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 주관으로 수의학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이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가 대한수의사회지 36권 4호에 게재되었다. 박근식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악역을 맡았음을 자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sup>3</sup> 지금의 정서 상 선진국의 수의학교육기준으로 9개 국립대학의 육성을 위한 국제기준으로의 교수의 증원이나 시설 그리고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현실 실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국립대학 수의학과 교수가 힘을 합하여 대학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합하고 교수 T/O와 예산을 합하여 운영토록 관련단체와 함께 건의한다면 정부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나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수의 분야의 새 천년을 위해 지혜로운 결단을 내림으로써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영순 학장은 한국수의학의 발전 방향을 일본수의학교육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sup>4</sup>

이러한 시도는 아주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의 학제개편이 일본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들의 실패보다 더 좋은 교훈은 우리에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의학교육연한을 6년으로 개편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1998년 10월에 일본수의사회가 조사, 분석한 수의학교육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현재의 6년제 수의학교육환경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매우 부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6년제 수의사는 지금의 각 대학 교육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6년제 수의사를 고용하는 기업측은 4년제와 6년제 수의사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 대학교원으로부터는 6년제 교육 발족 이후 대학에서 강좌수(교원수), 인원, 시설, 설비 등의 교육환경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충실도는 불충분하다고 지적당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국가로부터의 대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국립대학의 수가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외부로부터의 목소리나 자체적 비판의 소리도 높아서 과감한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다. 그들은 8개의 지방 수의학과를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4개씩 묶어서 지역의 유명 국립대학에 수의학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학장은 이러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적 통합이나 대학간의 빅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기준에도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수의학교육협의회장인 카라키 교수의 발표는 위의 내용을 너무나 잘 뒷받침하고 있다.<sup>5</sup> 그는 일본과 유럽의 수의학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수의학교육개선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문부성과 국립대학 수의학협회가 함께 추진한 재편정비운동 (통폐합운동)이 “나의 대학에 오면 찬성, 너의 대학에 가는 것은 싫다.”는 태도, 즉 “교원들이 수의학의 장래에 전망을 갖지 못했고, 빈곤한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그들은 10개 학교가 있는 국립대학 수의학과를 5개 대학에 재편정비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날로 심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루 빨리 수의학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문부성의 연구비를 받아 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나온 수의과대학 통폐합에 관한 목소리를 정리했다. 비록 많지는 않으나 이러한 목소리를 잘 새겨 들으면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위에 열거한 주장이나

제언 그리고 현실의 냉철한 분석 등은 우리 나라 수의과대학의 통폐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옹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수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의학의 앞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머지 열악한 교육 환경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에 대한 위기의식이 결여된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폐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아직 들어볼 수 없다. 그것은 그 의견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3년 전 필자의 글이 게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이미 나왔어야 옳다. 필자가 그 글을 쓴 것은 잘난 채하거나 영웅심에서 한 행동이 아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글을 썼는데, 첫째는 6년제 교육을 시작한 뒤 닥칠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정으로 보아 6년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6년제 수의사가 배출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대학의 자연도태라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둘째는 학문활동의 문제였다. 교수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활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몇 개의 대학이 합하면 교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한 교수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어려움은 해결된다. 자연스럽게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고 좋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지식이 풍부해져서 가르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교수가 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 생존을 건 대학들 간의 국내 및 국제적 경쟁 속에서 오직 이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에서였던 것이다.<sup>6</sup>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바로 잘못이라고 한다 (過而不改, 是謂過矣). 잘못을 저지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우리는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니 지금 곧 전국 수의학교육협의회, 전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 그리고 대한수의사회 등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필자로서는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는 현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몰매를 걱정해서인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서인가? 그런 때는 맞아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 아닌가? 6년제로의 개편을 요구할 때는 전국의 수의학교수들이 모여 의견을 집약하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달 수 있는 통폐합 문제로는 그런 과정조차도 거칠 수 없는 것인가? 필자는 수의학을 전공하고, 그 학문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 정년을 맞이하고, 정년 후에는 수의학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한 대가로 연금을 받아 살다가 생을 끝내게 된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수의학은 필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학문이다. 일본의 수의학과<sup>5</sup> 마찬가지로 우리 수의학과도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수의학을 전공한 우리 모두가 수의학의 발전을 위해 좀더 큰 안목으로 앞을 내다봐야 한다. 이 글은 오로지 우리 수의학의 발전을 위해 쓴 것이며, 후학들이 어려움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다. 수의계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자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수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그친다.

1. 이정길: 6년제 수의학교육과 우리가 해야 할 일. 대한수의사회지, 1997; 33: 457-461.
2. 이성환: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과 그 수의 적성. 대한수의사회지, 1999; 35: 862-867.
3. 박근식: 현행 수의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수의사회지, 2000; 36: 285-305.
4. 이영순: 한국 수의학의 발전 방향. 대한수의사회지, 2000; 36: 306-317.
5. Karaki H: Level of world veterinary education and reform of Japanese veterinary schools. 수의학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0; 서울, pp. 71-80.
6. Hayashi Y: Idealistic reformation of university in 21 century. 수의학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0; 서울, pp. 81-91